⊕ 공지사항

2015/16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캠프
기간: 12월 19일(토) - 21(월)
신청기간: 10월 10일(토) - 31일(토)
연락처: 김민태 알렌 교감 (0430 301 168)
남보라 데보라 (캠프장) (0419 161 313)

10월 구역장 / 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25일(주일) 구역장 / 반장 교육 II (12:30pm - 2:30pm)
구역장 회의(2:45pm - 4:00pm) 미카엘방

예비자 입교식
- 10월 25일(주일) 교중미사 중

위령의달 레지오 묘지방문 연도
- 일시: 11월 1일(주일) 12:30분
- 장소: Rookwood 한인 천주교 묘역
- 대상: 전신자

위령미사
- 11월 2일(월) Rookwood 한인 천주교 묘역
- 연도: 오전 10시
- 미사: 오전 10시 30분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친교의 밤
HSC 시험을 끝낸 12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학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날짜 : 11월 7일(토) 18:30
- 장소 : 기념관 및 성당
- 문의 : 이나은(미카엘라) 0421 224 411

유아세례 1차 부모교육
- 일시: 10월 28일(수) 부터

주일학교 가정미사
- 10월 31일(토) 5시 30분
- 초등부, 중등부 주일학교 학생 및 학부모

예비자 가정방문
- 일시: 11월 7일(토) 부터

2016년 한글학교 입학 접수
- 11월 7일(토), 14일(토)
- 3시 - 5시 사이 기념관 식당내
- 담당자: 이선희 스텔라 (0406 564 159)

대림시기 40일 평일미사 봉헌
- 기간: 2015년 11월 7일(토) ~ 12월 23일(수) 평일
- 준비물: 출석표
-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 참조

단체모임
- 10월 25일(주일): 카나 소공동체
- 11월 1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 11월 2일(월): 교리봉사회 임원모임
- 11월 7일(토): 성모회
- 11월 8일(주일): 쌍뚜스, 전례해설단 및 독서단, 안나회, 요셉회
연령회, 울뜨레아, ME조장

2016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16년 월간지를 신청 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참소중한 당신, 경향잡지, 마리아지, 야곱의 우물, 가톨릭 다이제스트 등)

2016년 제7차 창세기 연수 봉사자 모집
-접수날짜: 10/10(토)-10/25(주일)
-봉사자 첫번째 미팅: 2015년 11월 29일 (주일) 1시 @실버워터성당
-문의전화: 김보겸 아가다 0416 760 761, 김선욱 바오로 0411 376 116

대림초 세트 판매
- 장소: 성물방
- 가격: $10

공동체 설립 40주년 기도문 수정및 배부
- 새로 배부되는 기도문을 사용해 주십시오.
일부 중복된 부분과 구절이 수정되었습니다.

선종 박전견 엘리사벳
- 망자와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봉사
■ 25/10월, 1/11월 06 구역 ■ 8, 15/11월 07 구역 ■ 22, 29/11월 07 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오늘의 중식 메뉴
잔치국수 (복사자모회)

봉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기타	지출	누적잔액	미사 참례수
$3,055.75	$18,406.85	$260.00		$7,822.82	$79,354.19	1,801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2 (노 미카엘 신부), 8756 3331 (이 스테파노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연령회 0433 067 456 (김인섭 야곱) 차량봉사 0414 488 700 (이창석 바오로)

연중 제30주일 2015. 10. 25(나해) / 제65호

시드니 한인 가톨릭 주보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노호영 미카엘, 이남웅 스테파노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최병훈 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를
건설 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시티)
5:30 pm (영어)
7:30 pm

⊕ 10월의 그리운 신부님, 수녀님 생각

수요 저녁 미사 참례로 오가는 한밤의 드라이브 코스는 나에겐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공간의 주님과 둘만의 다정한 시간이 되어준다. 오늘 귀가 중에 문득 우리 교회가 지금에 있기까지 고국의 부모님 같이 우리를 보듬아 주셨던 여러 신부님과 수녀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내 가슴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파도 치며 오랜 여운을 남긴다.

80년대 초, 애쉬필드에 위치한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큰 회색빛 성당에서 호주 신부님과 한국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은 감격 그 자체였다. 턱수염이 인상적이었고 고향 아일랜드로 귀국하신 노 신부님(Noel Connely)도 한국말을 잘 하셨고, 멋진 파이프 담배를 즐기셨던 황 신부님(Frank Ferrie)의 자상하고 친절한 보살핌은 이민생활에서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을 일일이 챙겨 주시고, 가정 미사는 친정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에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됐다.

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마련해 주신 투라무라 골롬반 신학교 운동장에서의 부활절 행사는 야외 피크닉으로, 캠프 화이어를 피우고 게임과 운동 경기를 저녁 늦도록까지 즐겼던 그 추억은 나의 이민 역사의 첫 장에 잘 간직되어 있다. 후임 경 베드로(Peter J Kelly) 신부님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셨고, 실버워터 교회 건축의 기초를 마련하시느라 시내 교구청으로 전철을 타고 동분서주하시면서 고생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돌아가신 만신부님께서 주신 고해성사의 보속은 지금도 내 삶에 연결돼 있고, 늘 실천하기를 격려하며 또 하느님과의 화해의 은총으로 이끌어 준다. 또한 홍 야고보 신부님은 늘 거기에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골롬반 선교회의 모토인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몸소 증거 하고 계신다.

또한 한국 초대 이 에우제니아 원장 수녀님과 뒤이어 장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당시 개척 교회보다도 더욱 열악한 여건에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재정적으로 틀을 갖추지 못한 어려움을 가진 우리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되기까지의 주춧돌이 되어 주셨다.

성당 곳곳의 그리고 내 마음속의 작은 성인이 되어 주신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심어 놓으신 아름다운 꽃들이 곱게 자라 그 향기를 피우며 항상 내 가슴에 찾아 든다.

10월 묵주(로사리오) 기도 성월과 전교 주일을 맞이해 올해는 유별나게 감회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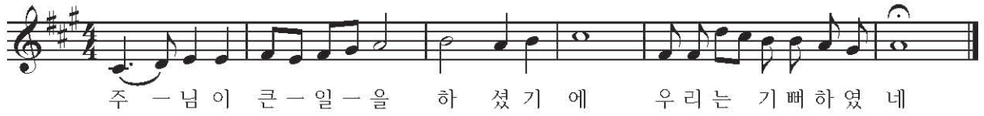
'선교의 수호자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어린이와 같이 되는 작은 길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한 모든 이를 하느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훈화 말씀은 해야 할 일이 많은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 전례성가 / 화답송

성령 기도회 고은강 마리아

전례성가: 입당: 26 봉헌: 213, 210 성체: 156, 167 파견: 246
제 1독서: 예레 31,7-9 제 2독서 히브 5,1-6 복음 마르 10,46ㄴ-52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제3차 PNG 해외 의료 봉사 해단식

지난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파푸아 뉴기니를 다녀온 제 3차 해외의료봉사단이 18일 교중미사중 해단식을 가졌다.
단원중 한명은 "피정을 다녀온 기분이다. 많은 것을 배웠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가톨릭 상식 – 성모 마리아 공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은 커갔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갔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였기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나 큰 규모를 만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사안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인 사건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것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도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세상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바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분리되고, 또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입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성당 건축도 역시 다목적 공간으로 세우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성당 공간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성당은 세속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당도 역시 "유아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이 성당내부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역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방 역시 성당이라는 "속"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장소인 하느님의 집, 곧 성당안에 위치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유아방이라는 이름에 신앙의 의미를 더욱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몸이며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항상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 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

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2015년 10월 12일 - 10월 18일)

구분	신립수	신립 금액	납부 금액 (개인/가족 신립)	기타 납부금액 (단체/익명/감사헌금)
금주	15명	$6,700	$ 7,050	$620
누계	472명	$630,597	$240,330	$29,541

유문희 헬레나
이종숙 레지나
이정영 죠슈아
이정후 알렉스
이재운 요한
이풍자 요안나

남정철 요셉
박문수 프란체스코
박인수 유스티노
박영희 율리아나
박 헬레나
최정미 수산나

윤경순 레지나
익명 2명

단체
10구역3반 $200
4구역 $300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콰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온라인 성인 영어
세밀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영어 사용 능력을 현저히 향상
www.oclass.net 0411 745 825

미래운송
▶해외이사 전문 ▶일반이사 ▶포장이사 ▶장거리이사 ▶피아노 운반 전문
대표:고영식 파스칼 0404 075 667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세일즈 컨설턴트 David Jung
M: 0430 870 709
748 Pacific Highway, Chatswood

북창동순두부
BCD TOFU HOUSE 에핑 콜스 맞은편
T. 9868 4300 M. 0420 319 660
Shop 10/74 Rawson St. Epping 박만원 토마스

코알라 퀼트
캠시 영제과점 옆
손으로 만든 숄, 예쁜 니트, 퀼트 가방 인형 소품 판매
Sopia Kim 0412 502 711

Bendigo Bank
벤디고 은행 스트라스필드 지점
www.bendigobank.com.au/Strathfield
T. 02 9744 1433

장스 쥬얼리
커플링, 결혼예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T.9238 0050 M.0419 800 611
E. jangsjewellery@hotmail.com / www.jangsjewellery.com

연중 제 33주일 / 마르 13, 24 – 32

질문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24)
▶ 내 인생에 큰 경고가 되었던 어떤 일(사건, 재해 등)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에 온 줄 알아라." (29)
▶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3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31)
▶ 세상일에 집착하느라 하느님을 외면하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32)
▶ 뜻밖의 사고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 세상을 떠난 친인척 중에 늘 하느님께 대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 가자! 40주년 기념사업

대림시기 40일 평일미사 봉헌

40일 평일미사 봉헌운동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헌장 47항)인 성찬례에 참례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40주년의 주요사업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 공동체의 지향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기간: 2015년 11월 7일(토) - 12월 23일(수) 평일
준비물: 출석표

※ 지침
1) 40일 평일미사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미사를 봉헌합니다.
2) 본당에서 미사에 참여할 때 미사 전, 후에 입구에서 해당 날짜에 본인이 도장을 찍습니다.
3) 가능하면 본당미사에 참여하되 불가피한 경우 로컬 본당에서 미사를 하고 당일 그 본당 신부님의 사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개인과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평일미사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표에 가족이름을 기재하여 하나만 사용합니다.
5) 소공동체, 개인(가족)별로 필요한 지향을 담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묵상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르티매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는 무작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 일부러 오실 것 같지도 않다. 결국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실 수도 있고, 듣고도 와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질러본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소경인 주제에 왜 이리 시끄럽냐고,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는다. 그러나 바르티매오는 사람들의 꾸지람에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만일 바르티매오가 이 꾸지람에 주눅이 들어 조용히 했다거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 주실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건 멍청한 짓이라 판단했다면 그는 결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간절한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희망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혹시 무엇을 청하면 좋을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희망도 없고,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기도조차 하지 않은 채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고 있다면 바르티매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경은 아닐까?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는 데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복수동 성당 오종진 베드로 주임신부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드립니다
www.virtu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제일물리치료 병원·한의원
대표원장 국중두 토마스모어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2층 T. 9763 5015

아이가구 IGAGU
www.igagu.com.au
학생 가구 ★ 엔틱 가구 ★ 신혼 가구
허리가 편안한 듀오백 의자
18/6-20 Braidwood St, Strathfield South T. 9742 3220

Miracle Finance
주택융자 · 재융자 · 상업건물 융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부엌가구•일반가구•인테리어•주문제작[공장 직영]
TOTAL KITCHEN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시드니부동산 Sydney Nationwide Realty
28년 전통의 시드니 부동산 9283 7255 0416 000 534

삼성 한의원
한의사 강성후 리차드
스트라스필드 본원 Suite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Tel: 9746 3537
리드컴 분원 28/1-3 May St Lidcombe Tel: 9746 3537

동서유통 한국 택배 전문 업체
★ 호주산 소고기 선물세트 · 와인
★ 경·조사용 꽃 바구니 · 화환 · 케익
9750 2694 / 0425 213 503 dongseoyutong